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주랑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on Learning Flow of Team-Bas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Ju-Rang Han
Dept. of Nursing, Seojeong College, Associate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TBL)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7년 1학기, 총 6주간 팀기반학습에 참석한 98명의 간호대학생이었다. 자료는 2017년 6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는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공유리더십은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에게 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경우 메타인지를 최대한 높이고 공유리더십을 향상시켜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팀기반학습,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on learning flow of Team-Based Learning(TBL) in nursing student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Data were collected via survey from 98 nurs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TBL for 6weeks, in June 201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etacognition, shared leadership and learning flow. Metacogn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low. Shared leadership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Conclusively, this results indicate a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promote the shared leadership and maximize metacognition Team-Based Learning(TBL)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Team-Based Learning, Metacognition, Shared Leadership, Learning Flow, Nursing Student

Received 1 October 2017, Revised 2 Novem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u-Rang Han
(Dept. of Nursing, Seojeong College)
Email: jrhan27@seojeo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질병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소비자 중심의 사회 구조 등 의료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열의 대학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있는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간호대학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간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간호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의 교수들은 교육과정의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학생 개개인을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시켜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팀기반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은 학습자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고 학습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팀 체계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방법으로, 사전 자가학습 · 준비도 · 학습내용 적용의 3단계로 구성된다[1].

팀기반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동기나 흥미를 유도하고, 다양한 발표 기회를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히 팀기반학습은 보건의료전문가들과 팀으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학생에게 동료와 상호작용, 의사소통, 협동심, 의사결정력의 향상을 지원한다[3]. 보건의료계열의 대학에서 팀기반학습을 적용한 결과로는 의학과에서 수업만족도가 높아졌고[4], 치위생과에서 학습태도,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5], 간호학과에서는 학습동기와 학습태도가 높아졌음이 보고된 바 있다[6, 7].

팀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리더십은 팀성과 창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8]. 리더십의 전통적인 개념은 조직의 공식적인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발휘하는 하향적인 리더십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리더십

을 팀리더의 개인적 영향력으로 간주한 전통적 리더십 개념에서 벗어나, 단일 리더가 아닌 팀구성원에 의해 리더십 역할이 수행되는 집단적(collective)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9], 구성원들 간의 이러한 집합적 수평적 공유리더십이라고 한다[10]. 공유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보다 더 효과적이고 공고한 리더십 시스템을 제공하며, 수직적 리더십에 비하여 팀효과성에 더욱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11,12,13]. Ensley et al.[11]은 공유리더십을 1명의 공식적인 리더가 아닌 팀구성원 전체로서 리더십이 나타나는 팀프로세스라고 하였다. 또한 Carson et al.[14]은 공유리더십을 팀 내 구성원들 간 리더십 영향력이 분산됨으로서 나타나는 팀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유리더십은 팀성과 및 팀몰입과 연관이 있으며[15, 16, 17], 업무 수행에서 공유리더십의 정도가 팀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4]. 공유리더십의 선행요인으로는 변혁적 리더십과 공유책임감[18], 코칭[19]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공유리더십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앞서 리더의 리더십 유형과 코칭 등 팀 리더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나왔을 뿐 팀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공유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팀기반학습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메타인지이다. 메타인지는 인지 전략의 사용 과정 중 자신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사고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이전에 습득한 기술과 경험,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는 개인의 생각을 의미한다[20]. 흔히 메타인지를 생각에 대한 생각(thinking about thinking), 인지에 대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 인지에 대한 반영(reflection about cognition)이라고도 한다[21]. 즉 메타인지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시 개인의 인지과정을 이해하고 문제해결과 사고의 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 시 학습자 간 상호작용, 집중력과 학업에 대한 흥미 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 메타인지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지금까지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선행연구에 의하면 메타인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25, 26, 27, 28],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팀기반학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 그리고 학습성과를 유도하는 학습몰입의 관계를 확인하고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매개 변인으로써 공유리더십의 영향을 확인하여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역량있는 간호인을 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정도 및 공유리더십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S대학교 간호학과의 1학년 학생들로 2017년 1학기 전공기초과목인 삶과 철학 교과목의 팀기반학습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분석 자료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아 수집한 101개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한 3부를 제외하고 총 98부를 활용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지는 익명 처리될 것이며 본 연구로 인해 취득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2.4 팀기반학습 수업진행

팀기반학습은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5일 까지 6주 동안 주 1회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회 2시간씩 운영되었다. 수업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팀기반학습이 시작되기 전 주에 팀기반학습의 목적과 의의, 진행방법, 선행학습 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 연구자가 학생개인역량 조사표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교과에 대한 흥미, 리더십, 정보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팀 당 6~7명의 학생이 배치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수업 전에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목표와 사전 학습하여야 할 읽기 과제를 배부하였다. 수업은 개인준비도 확인(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IRAT), 그룹준비도 확인(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GRAT), 사례를 적용한 토론과 발표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준비도의 확인은 읽기 과제를 기반으로 준비성,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하였으며, 그룹준비도 확인 후에는 관련 문제에 대해 교수가 다시 한 번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사례적용단계는 그룹별로 토론 후 사례를 발표하여 팀 간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팀기반학습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는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였다.

2.5 연구도구

2.5.1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은 Hiller et al.(2006)의 연구에서 검증되고 방호진[29]이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5문항이며 하위요인은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공유리더십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방호진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4이었다.

2.5.2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Prinrich et al.(1991)이 제작한 「학습 동기화 전략에 관한 질문지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의 총 44 문항 중 우옥희 [30]가 17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MSLQ는 동기와 인지, 자원관리 영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옥희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1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0이었다.

2.5.3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석임복 외(2007)가 개발한 도구를 이지혜 [31]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문항은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학습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지혜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0 이었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가 지각한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공유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

치는 영향과 메타인지와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2]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1단계에서 메타인지가 공유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2단계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공유리더십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때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dex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로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76.5%, 남자 23.5%이었으며, 연령은 20세 미만 64.3%, 20세 이상 30세 미만 30.6%, 30세 이상 5명이었다. 출신 고등학교는 이과 51.0%, 문과 40.8%, 기타 8.2%로 이과가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3 (23.5)
	Female	75 (76.5)
Age(year)	>20	63 (84.3)
	21~30	30 (30.6)
	31>	5 (5.1)
High school	Natural Science	50 (51.0)
	Liberal Arts	40 (40.8)
	Other	8 (8.2)

3.2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의 정도

메타인지의 평균평점은 7점 만점 중 4.79점이었으며, 공유리더십은 4.68점, 학습몰입은 4.61점으로 나타났다<Table2>.

<Table 2> Level of Metacognition, Shared Leadership, Learning Flow (N=98)

Variable	Minimum	Maximum	M±SD
Metacognition	3.00	6.53	4.79 ± 0.74
Shared Leadership	3.10	5.95	4.68 ± 0.63
Learning Flow	2.83	6.49	4.61 ± 0.71

3.3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메타인지는 공유리더십($r=.460, p<.001$), 학습몰입($r=.595,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유리더십 역시 학습몰입과($r=.445, p<.001$)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Metacognition, Shared Leadership, Learning Flow (N=98)

Variable	Metacognition	Shared Leadership	Learning Flow
	r(p)	r(p)	r(p)
Metacognition	1		
Shared Leadership	.460*(.000)	1	
Learning Flow	.595*(.000)	.445*(.000)	1

* $p<.001$

3.3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32]의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메타인지가 매개변수인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60, p<.001$), 2단계에서 메타인지가 종속변수인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95, p<.001$). 3단계에서 메타인지와 매개변수인 공유리더십을 예측변수로, 학습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유리더십과 학습몰입($\beta=.213, p<.05$), 메타인지와 학습몰입($\beta=.496, p<.001$)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메타인지의 β 값을 확인한 결과 3단계의 β 값이 .496으로 2단계의 β 값 .595 보다 작아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가 1.000으로 1.0 이하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와 관련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은 7점 만점 중 4.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측정한 김[33]의 연구에서 3.02점(7점 환산 시 4.23점) 보다 높은 결과이며, 보건의료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34]의 연구에서 3.37점(7점 환산 시 4.72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35]의 연구에서 3.50점(7점 환산 시 4.90점)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hared 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N=98)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 ²	F	p	VIF
1	Metacognition→Shared Leadership	.460*	7.423	.000	.203	25.516	.000	1.000
2	Metacognition→Learning Flow	.595*	7.208	.000	.347	51.955	.000	1.000
	Metacognition, Shared Leadership→Learning Flow				.379	29.976	.000	
3	Shared Leadership→Learning Flow	.213**	2.350	.021				1.269
	Metacognition→Learning Flow	.496*	5.469	.000				1.269

* $p<.001$, ** $p<.05$

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이다. 이는 한[34]의 연구에서 각 연구마다 측정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이 대체적으로 5점 만점 중 3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팀기반학습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공유리더십의 수준은 7점 만점 중 4.6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아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김[36]의 연구에서 5점 만점 중 3.83점(7점 환산 시 5.36점), 군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15]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4.07점(7점 환산 시 5.70점) 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리더십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팀조직에 비하여 팀기반학습 조직의 공유리더십의 수준이 낮은 것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arson et al.[14]은 공유된 목적, 발언권, 사회적 지원 등이 높을수록 팀 내 공유리더십의 수준이 높으며, 외부 리더에 의한 코칭이 팀의 공유리더십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팀기반학습 시 공유리더십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는 팀이 효율적으로 협력하도록 적절한 코칭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팀기반 학습 시 메타인지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2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학습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과 이해도를 점검하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학습몰입도가 높다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의 임상 현장은 매우 복잡하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임을 고려한다면, 대학에서는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팀기반 학습 시 공유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의 연구[38]에서 공유리더십이 팀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공유리더십의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은 팀성과 및 팀몰입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이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공유리더십의 팀 내 구성원인 개인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즉 역동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공유

리더십은 구성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37], 팀의 목표를 향해 팀 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높은 몰입을 경험하게 되어[38], 팀성과 및 팀유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팀기반 학습 시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인지는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유리더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은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공유리더십은 궁극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인지적 행동 전략에 따라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고 것을 명확히 하고, 생각을 표현하며, 발표 등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명확히 하여 메타인지를 높이는 과정[39]에서 팀의 목표달성을 위한 팀 내 개인 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영향력이 발휘되어 개인의 학습에 대한 몰입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공유리더십을 통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 학습몰입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메타인지와 공유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이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팀기반학습에서 공유리더십이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규명한 것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에서 팀기반학습을 활용한 수업 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공유리더십을 향상시켜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간호학 혹은 간호학 이외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팀기반학습에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L. K. Michaelsen, M. Sweet, "The essential elements of team-based learning",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No. 116, pp. 7-27, 2008.
- [2] Y. M. Lee, J. K. Nam, H. J. Cho, S. Y. Lee,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learners' performance, learning activities, and motivation in a voc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2, pp. 51-71, 2011.
- [3] D. X. Parmalee, L. K. Michaelsen, "Twelve tips for doing effective team baseding", *Medical Teacher*, Vol. 32, No. 2, pp. 118-122, 2010.
- [4] K. H. Park, C. H. Park, W. J. Chung, & C. J. Yoo, "Implement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combined with team-bas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2, No.3, pp. 225-230, 2010.
- [5] I. S. Park, D. K. Kim, "Effect of TBL(Team-Based Learning) on oral prophylaxis education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3, No.1, pp. 125-133, 2009.
- [6] S. J. Han, "The impact of TBL(team-based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1, pp. 595-602, 2013.
- [7] H. S. Oh,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Outcome based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3, No. 9, pp. 409-418, 2015.
- [8] S. W. J. Kozlowski, S. M. Gully, E. Salas, & J. A. Cannon-Bowers, "Team leadership and development: Theory,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raining leaders and teams", In M. M. Beyerlein, D. A. Johnson & S. T. Beyerlein(Eds.), *Advances in interdisciplinary study of work teams: Team leadership*, Vol. 3, Elsevier Science/JAI Press, 253-291.1996.
- [9] N. S. Contractor, L. A. DeChurch, J. Carson, D. R. Carter, B. Keegan, "The topology of collective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23, No. 6, pp. 994-1011, 2012.
- [10] C. L. Pearce, Sims, H. P., Jr., *Vertical versus Shared Leadership as Predi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Change Management Teams: An Examination of Aversive,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Empowering Leader Behavior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Vol. 6, No. 2, pp. 172-197, 2002.
- [11] M. D. Ensley, K. M. Hmieleski, C. L. Pearce, "The importance of vertical and shared leadership within new venture top management teams: Impl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startups." *Leadership Quarterly*, Vol. 17, No.3, pp. 217-231, 2006.
- [12] C. L. Pearce, H. P. Sims Jr, "Vertical versus Shared Leadership as Predi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Change Management Teams: An Examination of Aversive,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Empowering Leader Behavior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Vol. 6, No. 2, pp. 172-197, 2002.
- [13] C. L. Pearce, C. C. Manz, H. P. Sims Jr, "The roles of vertical and shared leadership in the enactment of executive corrup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9, No. 3, pp. 353-359, 2008.
- [14] J. B. Carson, P. E. Tesluk, J. A. Marrone, "Shared Leadership in Teams: An Investigation of Antecedent Conditions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0, No.5, pp. 1217-1234, 2007.
- [15] S. B. Lee, J. B. Woo, "The Influence of Shared Leadership on Team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Value Congruence", *Korean*

- Academy of Leadership, Vol. 5, No. 4, pp. 55-91, 2014.
- [16] J. R. Han,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on Team Performance and Team Commitment of Team-Bas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Team Trust",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03-311, 2016.
- [17] J. K. Kim,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Emerging Leadership Researches and the Team Effectiveness of Shared Leadership",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5, No. 6, pp. 207-217, 2017.
- [18] M. J. Kim, G. H. Hong, "Effects of Transformational & Shared Leadership on Diversity Attitude and Employees' Behaviors: Moderating Effects of Non-Differential Treatment", *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 13, No. 3, pp. 19-51, 2016.
- [19] I. S. Yang, "A Study on Antecedent and Consequences of Shared Leadership", Ph.D.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7.
- [20] S. N. Elliott, T. R. Kratochwill, J. L. Cook, J. F. Travers, "Educational psychology: effective teaching, effective learning", 3rd ed. NY: McGraw-Hill", 2000.
- [21] J. E. Jacobs, S. G. Paris, "Children's metacognition about reading: Issues in definition, measurement, and instru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2, Issue 3-4, pp. 255-278, 1987.
- [22] J.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6, No. 2, pp. 277-295, 2009.
- [23] M. H. Kang, Y. H. Song, S. H. Park, "Relationships among metacognition, flow, interaction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web-based problem based learning",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Vol. 12, No. 2, pp. 293-315, 2008.
- [24] P. W. Stewart, S. S. Cooper, L. R. Moulding, "Metacognitive development in professional educators", *The Researcher*, Vol. 21, No. 1, pp. 32-40, 2007.
- [25] S. Y. Jung, J. Y. Kim,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3, No. 2, pp. 97-119, 2012.
- [26] M. J. Choi, D. Y. 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Metacognition to the Information - See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7, No. 2, pp.75-101, 2013. DOI: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075>
- [27] M. Y. Cho, M. O. Chae,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13-522,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13>
- [28] Y. Y. Hwang, C. S. Park, M. S. "Chu, Correlations among Meta Cognition, Critical Thinking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Studying through Problem Based Learning(PB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 146-155, 2007.
- [29] H. J. Bang,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safety climate on team performance, team commitment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the role of team reflexivity as mediator-",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30] O. H. Woo, J. H. Park, "The effects of a PBL(problem-based Learning) o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by learner's meta-cognitive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15, No. 3, pp. 55-81, 1999.
- [31] J.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8, No. 2, pp. 67-92, 2010.
- [32]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33] H. J. Kim, "The Effects of Meta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Meta Cogni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8, pp. 609-618, 2017.
- [34] J. R. Han, J. M.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in College Students in Healthcare Field",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 273-282, 2017.
- [35] S. Y. Kim, H. J. Byun, M. H. Ko,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n undergraduate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 26, No. 3, pp. 63-80, 2015.
- [36] E. J. Moon, A. J. Hong, "The Effect of Community Learning Circle Memb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upon Knowledge Sharing and Mediation Effect of Shared Leadership."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20, No. 3, pp. 109-136, 2014.
- [37] D. M. Yang, H. J. Noe, D. S. Shim,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on Team Efficacy and Team Commitment: Mediating Effects of Task Coordinations and Workload Sharing",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Vol. 42, pp. 127-147, 2012.
- [38] R. Mowday, "Reflections on the Study and Releva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8, No. 4, pp. 387-401, 1998.
- [39] E. Blackey, S. Spence, "Developing metacognition", Eric Reproduction Services No. ED327218, 1990. <http://files.eric.ed.gov/fulltext/ED327218.pdf>.

한 주 량(Han, Ju Rang)



- 198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3년 8월 ~ 2014년 2월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부장
- 2014년 2월 ~ 현재 :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마케팅, 간호교육
- E-Mail : jrhan27@seojeong.ac.kr